

이능화 종교관의 변화

이 병 옥*

I. 서론	III. 『백교회통』 이후에 나타난 이능화의 종교관 변화
II. 『백교회통』에 나타난 두 가지 태도	IV. 결론 이능화 종교관 변화의 의미

I. 서론

이능화(1869~1943)는 민족문화를 연구한 3 대학자에 포함되는 사람이다 그는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하였다고 한다 그의 저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교회통』(1912)이다. 이 책에서 이능화는 불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론 불교중심의 시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 『조선불교통사』(1918)를 저술하였는데, 이는 한국불교사의 뼈대를 세우려는 시도이다 그 뒤에 이능화는 불교 중심의 시각에서 좀 더 열린 관점을 구사한다. 그것이 『조선기독교 급 외교사』(1928), 『조선도교사』(유고본 1959), 『조선무속고』(1927) 등에서 확인된다.

이 저서들에서는 불교에 중심을 둔 관점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종교를 가로지르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거나, 종교와 연결된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은 기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1927), 여성사에 대한 개척적인 글인 『조선여속고』(1927)

* 고려대학교 강사, 불교철학 전공

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밖에도 그는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상당한 부분이 6·25동란으로 인해서 소실되었다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이능화에 대한 연구는 늦게 시작되었다. 이능화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시작된 것은 1962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에 주최한 19주기 추념강연회(追念講演會)가 열리고 난 뒤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에 한국종교학회에서 ‘이능화의 종교사학’을 주제로 삼아 춘계와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고,¹⁾ 그 연구성과를 『이능화연구』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내기도 하였다. 이제 이능화 연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능화의 종교관이다. 이능화가 어떤 관점에 서서 불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능화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종교를 회통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내포주의(內包主義, inclusivism)라고 평가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²⁾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³⁾

1) 이재현, 「이능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7집(1999).

2) 김영호, 「이능화의 종교회통론」, 『한국학연구』, 8집(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7), 215쪽. 회통에도 여러 가지 회통이 있을 수 있다. 이능화가 제시한 회통의 형태는 불교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종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론에 비추어 보자면 이능화의 회통은 내포주의(內包主義)의 입장이다. 자기 종교 안에 다른 종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원리이다. 이 틀에서도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이 보존된다.

3)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90쪽. 『백교회통』에서는 비교종교론을 단지 종교전통들간의 개념적 무차별 대응을 통한 비교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일관된 독특한 종교학적 관점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종교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희미하게나마 단순한 진리주장보다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신앙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종교적 시각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신광철 「이능화의 종교학적 관점」, 『이능화연구』(집문당, 1994). 이능화는 당대의 종교학적 상황을 ‘종교들의 공존’과 ‘종교영역과 사회(정치)영역의 분리현상’으로서 인식하고, 여기에 비교종교학적 관점과 한국종교(사회)사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능화는 “종교는 각각 자기 설에 따를 뿐이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신앙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이능화의 불교학과 근대적 종교인식」, 『한국종교사연구』, 10집(2002). 이능화가 근대한국불교학연구에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배경에는 당시 종교상황을 종교다원주의로 보았던 점과 종교학적 방법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대립된 견해에 대해 그 해법의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는 이능화의 종교관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백교회통』을 저술할 때는 불교와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하는 입장과 불교를 강조하려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여 있었다가, 『조선도교사』와 『조선기독교 급 외교사』를 저술할 때는 불교를 강조하려는 입장은 사라지고, 신교(神敎 大倣敎)⁴⁾·도교·기독교·불교를 관통하는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수반해서 신종교와 유교에 대한 관점도 『백교회통』과 그 이후의 저술에서 차이점이 생기고, 무속에 대한 관점도 『백교회통』과 그 이후의 저술에서 차이점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능화의 종교관이 변화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그의 저술에서 ‘종교 간의 비교’와 ‘특정종교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백교회통』에서 제시한 내용과 그 이후의 저술에서 말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이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능화의 저술이 매우 많으므로⁵⁾ 『백교회통』과 『조선도교사』와 『조선무속고』 등의 몇몇 저술에 한정해서 분석하고자 하며, 기타 잡지에 실린 글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백교회통』에 나타난 두 가지 태도

『백교회통』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섞여 있다. 하나는 불교와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하려는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튼 불교가 제일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이 둘은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 만약 불교와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하려고 하였다면 불교 우위를 펼치서는 곤란하고, 불교 우위를 강조하려고 한다면 불교와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논리적 모순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필자는 『백교회통』이 이능화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

4) 이능화, 李在崑(울갑), 『조선무속고』(동문선 2002년 3쇄, 11~12 쪽에서는“ 오늘날에 이르러 조선 고대 신교(神敎)의 연원과 조선민족의 신앙사상 및 조선사회의 변천상태를 연구하려면 무속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5) 이하중·신광철(편), 『이능화저작목록』, 『이능화연구』(집문당, 1994).

한 저술이지만, 아직 성숙된 견해를 내놓지는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점은 뒤에 가서 수정된다.

1. 불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하는 시각

『백교회통』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하고 있지만, 이 항목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기독교, 도교, 유교, 대종교(大宗教 神教)만을 서술하고자 한다.

1) 기독교와 불교의 대등 비교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 우주의 기원·인간의 기원·창조의 원리에 대해 비교한다. 이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불교를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불교적 사유에서는 우주의 기원·인간의 기원·창조의 원리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기독교와 비교함을 통해서 비중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기독교의 『창세기』에서는 “천지만물이 6개월의 공(功)으로 이루어졌고, 흙을 뭉쳐서 인간의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불교의 『능엄경』에서는 “세계의 오탁(五濁 劫濁·見濁·煩惱濁·衆生濁·命濁)이 사대(四大)의 얽힘에서 시작되니, 비유하면 흙을 깨끗한 물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⁶⁾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기독교의 『창세기』에서는 “제6일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뼈와 살은 그 모습이 남녀(男女)로 나누어졌고, ‘너희의 몸은 흙이니, 죽으면 그 근본에 돌아갈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했다 그에 대해 불교의 『능가경』에서는 “제8아뢰야식이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데, 진실하고 항상한 것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의 근본이 된다. 비유하면, 흙덩어리와 먼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하지도 않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⁷⁾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성스럽

6) 이능화(지음), 강효중(옮김), 『백교회통』(운주사, 1992년 2쇄), 103쪽. 그리고 이 뒤에 소개하는 인용된 내용은 『백교회통』의 한문본과 비교해서 다시 번역한 것이다.

7) 위의 책, 103쪽.

고 신령해서 형상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 불교 쪽에서는 “진실한 부처는 형상이 없고, 법신은 모습이 없지만, 32상(三十二相)과 80종호(八十種好)를 나타내니, 이는 세간의 생각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⁸⁾

그리고 이능화는 인간의 평등성에 대해서도 비교한다. 이는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불교에서도 그와 상응하는 것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고 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은 다만 감각의 영혼이 있고, 오직 인간만이 평등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불교 쪽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고 하였지만, 모든 중생과 생명이 또한 평등한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⁹⁾

이 밖에도 주목할 것에는 하나님과 부처님의 능력의 비교, 하나님과 부처님의 존재방식의 비교, 예수의 재림과 미륵불의 출현의 비교, 천국과 불국토의 비교, 부활과 열반의 비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와 불교의 삼신(三身)을 비교한 것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성부(聖父)·성자(聖子)·성신(聖神)인데, 불교 쪽에서는 삼신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청정한 법신(法身), 원만한 보신(報身), 천만 억으로 변화한 화신(化身)이다.¹⁰⁾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는 이처럼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불교의 삼신을 비교하는 데 그쳤지만, 이것이 뒤에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불교의 삼신·도교의 삼청설(三清說)·신교(神敎)의 삼신설(三神說)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이 점도 종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예(例)이다

2) 도교와 불교의 대등 비교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 도교와 불교를 비교하면서 여러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도(道)에 대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우선, 이능화는 도교와 불교의 도(道)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면서 도(道)는 이름

8) 위의 책, 104쪽

9) 위의 책, 104쪽

10) 위의 책, 106쪽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고 제시하고, 여기에 덧붙여 불교의 설명을 통해서 도(道)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도교의 『도덕경』에서 “도(道)를 말할 수 있으면 항상된 도(道)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할 수 있으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불교의 『사십이장경』에서는 “안으로 얻은 것이 없고 바깥으로 구할 것이 없으며, 마음은 도(道)에 구애되지 않고 또한 업(業)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생각 생각마다 조작함이 없고 닦음과 증득함도 없고 모든 수행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숭상하는 것을 도(道)라고 이름한다”라고 하였고 『대승기신론』에서는 “모든 존재는 처음부터 이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¹⁾

또 다른 측면에서 도(道)를 비교하고 있다. 이능화는 도(道)가 천지보다 먼저 이루어진 존재라는 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존재라는 점에서 도교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도교의 『도덕경』에서 “어떤 물건이 혼연히 이루어져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고 하였는데, 불교의 『선가귀감』에서는 “지금 한 물건이 있으니, 원래부터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으며, 이름지을 수 없고 형상을 구할 수 없으며, 옛 부처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응연(凝然)히 한 모습이 둥글었다”고 하였다.¹²⁾ 다시 말하자면, 『도덕경』에서 어떤 물건이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고 말하고 있고, 『선가귀감』에서는 한 물건이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고 말한 것에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표현에서는 차이점이 보이지만 『도덕경』에서 한 물건이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고 말한 것은 결국 한 물건이 우주의 근원이고 영원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고, 이것을 『선가귀감』에서는 한 물건이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

3) 유교와 불교의 대등 비교

이능화는 유교와 불교의 비교를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도(道)와 마음의 본체, 그것을 깨닫는 것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유교와 불교에서 도(道)가 형상의 제약을 벗어난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고 이능화는 지적한다. 소강절 선생이 시(詩)로 말하길 “도(道)

11) 위의 책, 20쪽

12) 위의 책, 20쪽

는 천지와 통하여 모습이 없고 바깥이 없다”고 하였는데, 불교 쪽의 고봉(高峯) 선사의 『선요』에서 “바로 허공도 사라지게 하고, 대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대상과 자신을 모두 잊으니, 마치 거울로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¹³⁾

또한 마음의 본체는 밝은 것인데, 현상에 의해 가려져서 본체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지적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자가 말하기를 “명덕(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이고, 그것은 비고 신령하여 어둡지 않은 것이어서, 많은 이치(理)를 갖추어서 만 가지 일(事)에 응하는 것이다. 다만 기품(氣稟)에 구애받아서 사람이 욕심에 눈멀게 되면, 때론 혼미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의 밝음은 일찍이 사라진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불교 쪽의 황백(黃檗) 선사의 『전심법요』에서 “본원(本源)의 청정한 마음은 항상 스스로 원만하고 밝고 두루 비추는 것이다. 그런데 세간의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는 작용을 마음이라고 인정하여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밀하고 밝은 본체(本體)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곧장 분별의 마음이 없으면 본체(本體)가 스스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⁴⁾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도 비교한다. 유교와 불교는 자기 마음의 구조를 깨닫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이능화는 주장한다. 주자의 보격치전(補格致傳)에서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 이치(理)를 이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궁구하여 그 지극함에 도달하기를 구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활연히 관통하면, 많은 사물의 겉(表)과 속(裏)·정미한 부분(精)과 거친 부분(粗)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고, 나의 마음의 온전한 근본의 대용(大用)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불교 쪽에서는 『6조단경』의 내용을 제시한다. 6조 혜능(慧能) 대사가 『금강경』을 듣고, 바로 모든 대상이 자기의 성품(自性)을 벗어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리고선 스승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성품(自性)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본래 나고 없어지지 않으며,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고, 본래 동요함이 없어서, 모든 대상을 생기게 할 줄 어찌 기약하였겠습니까”라고 하였다¹⁵⁾ 그렇지만 이능화는 뒤에 가서는 유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의 생각

13) 위의 책, 82쪽

14) 위의 책, 82쪽

15) 위의 책, 83쪽

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대종교(大宗教)와 불교의 대등 비교

이능화는 불교와 대종교(大宗教)를 대등하게 비교한다. 그 요점은 대종교(大宗教)의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桓儉)과 불교의 석제환인(釋提桓因)을 비교하고, 환인·환웅·환검과 불교의 삼신설(三身說)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조선도교사』와 『조선기독교 급 외교사』에서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불교의 석제환인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백교회통』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본다.

『단군사고(檀君事攷)』에서 “삼신(三神)에 머리를 조아리니, 삼신은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이다”고 하였고, 『신리(神理)』에서 “환인은 위 없는 위(無上之上)에 위치하고, 형상 없는 형상[無形之形]을 몸으로 삼고, 조작함이 없는 행위[無爲之爲]를 하고, 말 없는 말[無言之言]을 사용해서 큰 세계를 주재하고 있으니 곧 상제(上帝)이다. 환웅은 상제의 성품으로 만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곧 천왕(天王)이다. 환검은 천왕의 명정(命精)으로 만민을 교화하고 있으니, 곧 인종(人宗)이다. 삼신이 한 몸이니 상제의 삼신이 각기 그 신(神)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체에서는 하나의 상제가 되는 것이고, 작용에서는 삼신이 되는 것이다. 유신상제(維神上帝)는 형상 없음[無形]으로 형상[有形]을 만드니, 그래서 허공이 존재하고 세계가 출현하는 것이다. 유신상제는 조작 없음[無爲]으로 유위(有爲)를 일으키니 만물이 생기는 것이다. 유신상제는 말 없음[無言]으로 말[有言]을 이루니 만민이 교화되는 것이다”고 하였다.¹⁶⁾ 이 내용을 간추리면 환인은 상제(上帝)이고, 환웅은 천왕(天王)이며, 환검은 인종(人宗)인데 환인·환웅·환검은 하나이지만 작용에서는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불교의 『법화경주(法華經註)』에서 “석제환인은 그 의미를 번역하면 하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능천주(能天主)’이니, 곧 도리천주(忉利天主)이고, 옥황상제(玉皇上帝)이고, 또한 제석(帝釋)이라고도 한다”고 하였고 『대승기신론』에서 “마하연(摩訶衍, 대승)에는 2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법(法)이고, 두 번째는 의(義)이다. 법(法)은 중생심(衆生心)이니 이 마음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16) 위의 책, 157~158쪽.

존재를 포섭한다. 이 마음에 의지해서 대승의 의미를 나타낸다 무슨 까닭인가? 이 마음의 진여상(眞如相)이 대승의 체(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생멸의 인연상(因緣相)이 대승의 자체(自體)의 상(相)과 용(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義)에는 3종류가 있다. 첫째는 체대(體大)이니, 모든 존재가 진여(眞如)이어서 평등하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相大)이니, 여래장이 헤아릴 수 없는 성품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용대(用大)이니,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과(因果)를 낳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¹⁷⁾

이 내용을 간추리면, 『법화경주』에서 ‘석제환인’을 말하고 있고, 이는 대종교의 ‘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능화는 추정하고 있으며, 『대승기신론』에서 체대(體大)·상대(相大)·용대(用大)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종교의 환인·환용·환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능화는 대종교와 불교가 동일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불교중심적 시각

이능화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교와 대등하게 비교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불교중심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요점은 하늘 [天]에 대한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도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4종류의 하늘을 말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4종류의 하늘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초월한 경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도교에서 자연(自然)에 방임(放任)한다고 하는 것 이외에 『백교회통』에서 거론한 대부분의 종교는 천(天)을 중심으로 한다. 하늘[天]은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제1종천(第一種天)인데, 이는 형체로서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쓰이는 용례로 ‘창천(蒼天)’과 ‘천복(天覆)’을 들 수 있다. 둘째, 제2종천(第二種天)인데, 이는 주재하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그 예로서 ‘천제(天帝)’와 ‘황천(皇天)’을 거론할 수 있다. 셋째, 제3종천(第三種天)인데, 이는 명운(命運)의 하늘을 지칭하는

17) 위의 책, 159~160쪽. 그리고 『백교회통』의 한문본에는 있지만, 번역본에는 없는 것도 보충해서 번역하였다.

것이고, 그 용례로서 “하늘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제4종천(第四種天)인데, 이는 의리(義理)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로서 ‘천리(天理)’, ‘천도(天道)’ 등을 들 수 있다.

이 4가지 하늘[天]의 의미를 유교는 다 포함하고 있고, 기독교·이슬람교·바라문교·대종교(大倣敎)·천도교 등에서 말하는 하늘은 주로 ‘제2종천’이다. 물론 불교에서도 이러한 4종류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4종류의 하늘을 뛰어넘은 분으로 하늘 중의 하늘[天中天]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가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⁸⁾

III. 『백교회통』 이후에 나타난 이능화의 종교관 변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 두 가지 모순된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런 모순점은 뒤에 가서 수정되는데,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신교(神敎)·도교·불교·기독교의 동일구조에 대한 자각이고, 다른 하나는 신종교와 유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 수립이고, 마지막은 무속에 담겨있는 보편성의 탐구이다.

1. 신교·도교·불교·기독교의 동일구조 자각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능화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킨다. 대부분의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 공통분모로서 신교의 천제(天帝)·천신(天神)·신인(神人)의 삼신설(三神說), 도교의 원시천존(原始天尊)·태상도군(太上道君)·태상노군(太上老君)의 삼청설(三清說), 기독교의 성부(聖父)·성

18) 위의 책, 174~175쪽. 그리고 이재현, 「근대한국불교학의 성립과 종교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1998), 57쪽에서 이능화의 「불교와 타교(他敎)의 논쟁」(『조선불교계』, 3호, 1916년 6월)에서는 유교보다 기독교가 뛰어나고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우수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백교회통』에 나타난 불교중심적 시각과 통한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중심적 관점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렸다고 본다.

자(聖子)·성신(聖神)의 삼위일체설(三位一體說), 불교의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의 삼신설(三身說)을 제시한다. 그리고 도교의 ‘삼칭살’이 불교의 ‘삼신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자(朱子)의 비판에 대해서 이능화는 각각의 종교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 하면서 반대한다.¹⁹⁾ 이는 신교·도교·기독교·불교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그 공통점이 다른 종교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교는 자신의 개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공통점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개의 종교에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종교들의 공통점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공통된 주장을 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통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능화의 이런 시각에서는 불교를 강조하려는 관점을 읽을 수 없다. 대부분의 종교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자세로 이능화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2. 신종교와 유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 수립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는 신종교의 하나인 천도교와 대종교(大宗教 南學)에 대해서 불교와 대등하게 비교하고 있지만, 『조선도교사』에서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교에 대해서도 『조선유교상제례사(1930)』에서는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천도교·대종교와 불교의 대등 비교

앞에서 『백교회통』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백교회통』에 나오는 천도교·대종교(남학)와 불교의 대등 비교를 앞에서 소개하지 않고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글의 전개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9) 이능화(轉述), 이종은(譯註), 『조선도교사』(보성문화사, 2000년 재판), 153~154쪽.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이능화의 『조선기독교 급 외교사』의 서문에서도 발견된다.

① 천도교와 불교의 대등 비교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 천도교와 불교를 대등하게 비교한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일부를 삭제하고 정리하면, 주문에 대한 공통점, 그 중에서도 궁을(弓乙)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두 종교에서 유교·불교·선교(仙敎)가 합쳐진다는 공통점이다.

먼저, 궁을(弓乙)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천도교의 『동경대전』에서는 “기슴에 죽지 않는 약을 간직하고 있으니 그 모습은 궁을(弓乙)이다”고 하는데 불교 쪽의 밀교의 『진언집(眞言集)』에서도 “질병을 치료하는 부적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은 전부 궁을(弓乙)이다”고 하면서 천도교와 불교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⁰⁾

나아가 이능화는 천도교와 불교의 주문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천도교의 『동경대전』에서는 “오래 사는 주문을 입으로 외우는데, 그 글자 수는 21자(字)이다”고 하였고, 불교의 『능엄경』에서는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기억하거나 혹은 몸에 이 실달다반달라(悉怛多般怛囉)라는 ‘마음의 주문’을 간직하고 있으면, 오랜 수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오랜 수명을 얻는 주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는 천도교와 불교가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문의 위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²¹⁾

그 다음으로, 유교·불교·선교를 합친 점에 공통점이 있다고 거론한다 『천약(天約)』에서 해월(海月) 신사가 “나의 도는 유교·불교·선교(仙敎)가 합쳐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불교 쪽의 『능가경』에서 부처는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요, ‘선인(仙人)’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불교 쪽에서는 ‘유동보살(儒童菩薩)’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한다. ‘유동보살’은 유교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불교에서 사용한 용어이므로, 불교 쪽에서도 유교·선교(仙敎)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 보자면 천도교와 불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²²⁾

② 대중교와 불교의 대등 비교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 대중교와 불교를 3가지 관점에서 비교한다. 그 중에

20) 이능화 지음, 강효중 옮김 『백교회통』, 167쪽.

21) 위의 책, 168~170쪽.

22) 위의 책, 171~172쪽.

하나는 대종교가 유교·불교·선교(仙敎)를 합한 것이라는 지적인데 이는 천도교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또 다른 한 가지인 음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만을 살펴본다.

우선, 대종교의 음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음(吟), 아(嗚), 어(嘯), 이(嘯, 오(唔)’의 다섯 가지 모음(母音)으로 높은 소리로 노래처럼 부른다. 그 부르는 노래에 느리기도 하고 급하기도 한 절도가 있고, 연주하는 데 각각 법도가 있다 이렇게 하여 노래 부르기를 그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노래부르고 춤추게 되고 마음은 평온하고 기운은 화합하게 되고, 스스로 이치에 통할 수 있게 된다.²³⁾

그리고 불교 쪽에서는 『유마경』에서 “음성으로 불사(佛事)를 세우기도 한다”고 하고, 『능가경』에서는 “머리·가슴·목·코와 입술·혀·잇몸·치아가 잘 조화되어 음성이 생긴다”고 하고, 또 『능가경』에는 “여래에는 64 종류의 법(法) 음성이 있다고 한다.²⁴⁾ 이처럼 대종교에서는 음성으로 도(道)를 통하게 되고, 또한 불교 쪽에서도 음성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대종교와 불교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2) 신종교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능화는 『조선도교사』에서 그의 입장을 바꾼다. 『백교회통』에서 천도교와 대종교(南學)에 대해서 불교와 대등하게 비교하면서 끌어안으려고 시도했지만 이제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천도교에 대해서는 『백교회통』에서 인정하였던 ‘궁을(弓乙)’을 미신이라고 비판하고, 유교·불교·선교(仙敎)가 합쳐진 것이라는 주장은 그들의 견해일 뿐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리고 대종교에 대해서는 대종교에서 주장하는 비기(秘記)는 미신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고, 유교·불교·선교(仙敎)를 스스로 합하였다고 대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도 『백교회통』에서 대종교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과 크게 바뀐 것이다. 아울러 『조선도교사』에서는 증산교와 백백교(白白敎)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증산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위의 책, 161쪽

24) 위의 책, 163쪽

① 동학(東學)에 대한 비판적 입장

『백교회통』에서는 천도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조선도교사』에서는 동학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천도교·시천교(侍天敎)·청림교(靑林敎)를 포함시킨다. 이는 그만큼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조선도교사』에서는 ‘궁을(弓乙)’을 미신이라고 평가한다. 한국 사람은 옛적부터 미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조의 끝 무렵에 『정감록(鄭鑑錄)』의 비결(秘訣), 곧 정씨가 이씨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면 이로움은 궁궁을을(弓弓乙乙)에 있다는 내용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집집마다 전해지고 외우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십승지(十勝地), 곧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다닌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⁵⁾ 이는 『백교회통』에서 ‘궁을(弓乙)’을 인정하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또한, 이능화는 동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제우는 당시의 사람이 이러한 미신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것에 편승해서 도교의 장각(張角)의 지혜를 내었다. 그는 금강산 유점사에 있는 신이한 승려에게 하늘의 책 한 권을 받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였더니, 천제(天帝)와 계합해서 대도(大道)와 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주문과 부적을 만들어 내어서 많은 대중을 모이게 하였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비밀히 선포하여 스스로 유교·불교·선교(仙敎)를 합한 도(道)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²⁶⁾ 이 입장에 서자면 동학의 최제우는 당시의 미신에 편승한 인물로서 스스로 유교·불교·선교를 합한 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는 『백교회통』에서 유교·불교·선교를 합한 종교를 긍정적으로 본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그리고 동학의 지류(支流)에 속하는 청림교에 대해서 이능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림교는 신묘(辛卯)년, 곧 흰토끼의 해에 창설된 것인데 정씨가 교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씨 대신에 정씨가 왕이 되고 계룡산에 새로운 수도를 세운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사람을 모았다. 그래서 공주의 계룡산, 보은의 속리산, 문경의 청화산 등에 출몰하여 청림(靑林)의 설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무(光武) 연간에 이익을 구하는 자가 예천에서 교주 정해일(鄭海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25) 이능화(轉述), 이종운(譯註), 『조선도교사』, 324쪽.

26) 위의 책, 324쪽.

해서, 왕명으로 서울에 압송하였는데, 알고 보니 붓을 피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²⁷⁾ 이 지적 속에서 미신을 기초로 해서 신종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이능화의 생각을 알 수 있다.

② 대중교(남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능화는 『백교회통』에서 대중교(大宗敎)라고 한 것이 『조선도교사』에서는 남학(南學)으로 바꾸어서 부른다. 그리고 『백교회통』에서는 대중교(남학)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비해서, 『조선도교사』에서는 남학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조말엽에 정치가 부패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자, 누군가 요망한 말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미신을 좋아하는 무리에게 입으로 전해지면서 비기(秘語)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서학(西學: 기독교)은 동학(東學)에 망하고, 동학은 남학(南學: 大宗敎)에 망하고, 남학은 북학(北學)에 망하고, 북학은 중학(中學)에 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학에서는 유교·불교·선교(仙敎)를 통합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말한다.²⁸⁾ 이는 남학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유교·불교·선교를 합일하였다는 것도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증산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능화는 증산교를 보천교(普天敎), 태을교(太乙敎)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증산교에 대해서 『백교회통』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조선도교사』에서 보천교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비판적인 것이다. 강증산이 포교하는 동안에 이적(異蹟)을 나타내 보였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는 아직 조선사회의 지식의 정도가 유치함을 나타내는 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태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밀양에 있는 불교의 사찰에서 그 절의 승려 수명을 살해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 이로 볼 때 이러한 종교가 사회에 해독을 끼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²⁹⁾ 이는 신종교를 비판할 때, 그 종교가 미신에 근

27) 위의 책, 333쪽

28) 위의 책, 334쪽

거한 것이라는 주장에다 사회적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이능화가 유교를 비판할 때 더 분명히 나타난다.

3) 유교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능화는 유교에 대한 입장도 바꾼다. 『백교회통』에서는 유교와 불교를 대등하게 비교하였지만, 『조선유교상제례사』에서는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긍정할 부분과 비판할 부분을 나누어서 접근한다. 긍정적 측면은 효(孝)의 정신을 드러내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비판할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제례(祭禮)에서 서민을 고려하는 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교의 상제례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서민에게 보급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제례를 지낼 때 드러나는 평등하지 못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에 대한 차별의식은 평등하지 못한 점을 잘 나타내는 예라는 것이다. 셋째, 조선 유교인들이 지나치게 중국을 사모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조의 유생들이 상제(喪制)의 복제(服制)에 대해 신라와 고려의 제도를 비판한 것을 들 수 있다.³⁰⁾ 이처럼 이능화는 유교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3. 진화론적 관점에서 무속의 보편성 탐구

이능화는 무속에 대한 그의 관점도 바꾼다. 『백교회통』에서 무속을 뜻하는 귀신술수(鬼神術數)의 교와 불교를 대등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않는다. 『조선무속고』(1927)에서는 진화론의 관점을 도입한다. 이러한 관점은 『백교회통』에서도 어느 정도 단서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고대에서부터 귀신오행(鬼神五行)의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점쳤는데, 이것이 학술과 종교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이다.³¹⁾ 이것이 『조선무속고』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시된다. 그 내용은 한반도에 고유무속이 있었는데, 인류의

29) 위의 책, 338~344쪽.

30) 송석준, 「이능화의 한국유교연구」, 『이능화연구』(집문당, 1994), 83~85쪽.

31) 이능화(지음), 강효중(옮김), 『백교회통』, 35쪽.

문화가 진화하면서 유교·불교·도교가 들어와서 한국 고유의 풍속과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고대의 신교(神敎)의 연원(淵源), 한국민족의 신앙과 사상, 한국사회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속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³²⁾

나아가 이능화는 무속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무속과 주변 민족 무속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한국 무속의 특수성을 지적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대 무축(巫祝)은 천관(天官)으로서 한국 고대의 천군(天君)이나 차차웅(次次雄)과 비슷하다고 한다.³³⁾

IV. 결론: 이능화 종교관 변화의 의미

이 글에서는 이능화의 종교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능화의 종교관은 『백교회통』에서 그 기본이 세워진다. 하지만 『백교회통』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섞여 있다. 하나는 불교와 다른 종교를 각각 대등하게 비교해서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와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비교하려는 관점을 강조하면, 그의 종교관은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고, 다른 종교보다 불교의 우위를 강조하면 그의 종교관은 ‘내포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종교관은 『백교회통』이후 저술된 다른 저서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교·도교·기독교·불교를 가로지르는 공통점에 대한 추구이다. 이능화는 『조선도교사』에서 신교의 삼신(三神)·도교의 삼청(三淸)·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불교의 삼신(三身)은 공통점이 있고, 이는 서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백교회통』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종교와 비교하는 것과 견주어 볼 때, 신교·도교·기독교·불교의 공통점을 모색하는 것은 확실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종교와 유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백교회통』에서는

32) 이능화(저), 이재관(옮김), 『조선무속고』(동문선, 2002년 3쇄), 10~12쪽.

33) 서영대,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 대하여」, 『이능화연구』(집문당 1994), 43 쪽

신종교·유교를 불교와 대등하게 비교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저술에서는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 『조선도교사』에 나타난 신종교에 대한 비판은 주로 신종교가 미신에 속하고,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압축되고, 『조선유교상제례사』에 나타난 유교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셋째, 진화론적 관점에서 무속의 보편성의 탐구이다 『백교회통』에서 무속을 뜻하는 귀신술수의 교와 불교를 대등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저술된 『조선무속고』에서는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않는다. 진화론의 관점에서서 무속의 보편성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변화한 이능화의 종교관에서 어떻게 종교를 연구할 것인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종교를 연구할 때, 대부분의 종교를 관통하는 근본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능화가 신교·도교·기독교·불교를 가로지르는 공통분모라고 제시한 게 옳다는 것은 아니다.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한 종교의 이념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체 종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종교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모든 종교가 다 의미 있고 대등하게 취급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理想)이다. 현실에서 보자면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추한 일이 벌어진다 이 대목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능화는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종교와 유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특히 신종교에 대한 이능화의 비판이 반드시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신종교도 이제는 유력한 종단으로 탈바꿈하였고, 한국종교의 전통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기초한 종교비판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가 있으므로, 이능화의 관점대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기초한 비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으로 이능화는 무속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 모든 종교를 대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무속도 대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주장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독립된 논문에서 다

루고자 한다. 이능화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무속을 평가 절하할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발전하게 된 근원지로서 무속을 연구하라는 것이 된다. 이러한 때 또 다른 관점에서 무속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능화의 종교관은 『백교회통』의 과도기를 넘어서서, 대부분의 종교의 공통점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해서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 무속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연구하자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상의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능화의 종교관이 변화한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능화 종교관의 변화라고 지적한 3가지가 어떤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참고문헌

- 김영호, 「이능화의 종교회통론」, 『한국학연구』 8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7.
-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서영대, 「이능화의『조선무속고』에 대하여」, 『이능화연구』, 서울: 집문당, 1994.
- 송석준, 「이능화의 한국유교연구」, 『이능화연구』, 서울: 집문당, 1994.
- 신광철, 「이능화의 종교학적 관점」, 『이능화연구』, 서울: 집문당, 1994.
- 이능화(저), 이재곤(옮김), 『조선무속고』, 서울: 동문선, 2002년 3쇄.
- 이능화(지음), 강효종(옮김), 『백교회통』, 서울: 운주사, 1992년 2쇄.
- 이능화(轉述), 이종은(譯註), 『조선도교사』, 서울: 보성문화사, 2000년 재판
- 이능화, 『백교회통』, 서울: 조선불교월보사 불교서관, 大正원년
- 이능화, 『조선기독교 급 외교사』, 조선기독교창문사, 1928.
- 이재현, 「근대한국불교학의 성립과 종교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재현, 「이능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7집, 1999.
- 이재현, 「이능화의 불교학과 근대적 종교인식」, 『한국종교사연구』 10집, 2002.
- 이종은(외), 『이능화연구』, 서울: 집문당, 1994

● 투고일 : 2005. 6. 22.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이능화(Lee Neung-Hwa), 종교관(View of Religion), 『백교회통』(“Baik Gyo Hoe Tong”), 공통점 추구(the pursuit of the common point).